

나고 있으며 相好의 部分과 兩腕 등이 多少 磨損되었지만 거의 다시 期待하기 힘든 貴한 資料의 하나라고 해야겠다.

總高 八·五 cm 蓮華座前後徑 四·二 cm 臺座全高三·五 cm

註

① 黃壽永·瑞山磨崖三尊像에 對하여 震壇學報二〇輯所收 一九五九年

② 1、德壽宮美術館所藏 方形臺座金銅半跏思惟像에 도 頭部 三面에 寶

冠을 따로 마련해서 꽂았던 구멍이 남아있다 國寶圖錄第三輯

圖版第九參照。

2、新羅將來佛로 傳해오는 日本京都廣隆寺金銅半 跏思惟像도 寶

冠과 寶髮이 없으며 이것 역시 따로 만들어진 寶冠等을 架飾했

던 것으로 짐작된다。

③ 國寶圖錄第三輯 圖版第五參照。

④ 註① 一同論文

⑤ 國立博物館所藏 扶餘軍守里百濟寺址 木造塔址塔心礎石下發見

## 梁山龍華寺의 石造如來坐像

鄭 永 鎬



慶南梁山郡勿禁驛에서 約一 km 鐵道沿邊에 자리잡은 龍華寺는 最近에 重葺되어서 建物은 새로운 것이나 이 곳에 遺存하는 數例의 石造遺物은 그 彫刻手法과 樣式이 注目되어 一九六二年 一月과 八

월에 調査한 바 있다. 再調査時 筆者는 洪思俊, 鄭明鎬, 申榮勳 諸氏와 同行하여 많은 助言을 받았음에 感謝한다.

一、石造如來坐像

現在 龍雄殿內의 主尊佛로 奉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江邊밭에(이 곳은 洛東江이 흐르고 그 河岸이 耕作地임) 位置①했던 것을 一九四七年 二月에 法堂을 重創하고 移安②한 바라 한다. 한편 이곳 住持 梁大應氏의 말에 의하면 本來 이 坐像은 江진너 金海郡上東面甘露里 寺址③에 있었던 것을 韓末에 前記 江邊으로 옮긴 것이라 하는데 이에 關하여는 記錄이 없고 傳說뿐임으로 再考해야 될 것이다.

佛像은 臺座와 光背를 具存했는데 現在는 上臺뒀던 光背가 놓이는 部分이 若干 破損되어서 光背만은 뒤에 別置되어 있다.

如來像으로서 結跏趺座한 佛像의 두 손은 降魔觸地印을 結하였고 螺髮의 頭頂은 破損되어 若干의 肉髻가 남아 있다. 相好는 圓滿하며 白毫가 있고(現在는 後補物) 三道가 들려 있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流麗하게 흘러 左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으며 그 위에 양쪽 발이 들어나 있는데 손금과 발금 등의 各部表現이 注目된다. 全面에 白粉을 입히고 머리에는 青色, 兩目眼과 口唇等 相好各部에 彩色하여 本然의 尊嚴性을 잃고 있음을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臺座는 上中下臺로 構成되었는데 上臺만은 黃色, 그 외는 白色의 질은 粉을 입히고 있다. 下臺는 側面까지 마루 밑에 묻혀있어 上面의 八瓣單瓣伏蓮만이 보이고 二段의 角形과 一段의 물뿔받침으로서 八角中 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八面에는 모두 隅柱가 表現되었으며 各面에는 飛天像과 菩薩像이 陽刻되어 있는데 磨損과 濃厚한 白粉으로 原形을 그릇치고 있다. 上臺石은 複瓣의 仰蓮이 彫刻되었으며 下面은 八角으로 二段의 角形과 임이 있고 上面은 圓形으로 되어 있다. 光背는 粉漆이 없으며 舟形으로서 左便下端에 破損이 若干 있을 뿐 完形이라 하겠다. 頭身光으로 區分되었는데 頭光은 二重輪光으로 八瓣의 單蓮文을 彫刻하였으며 身光은 太二條線內에 아무런 彫飾이 없다. 頂上에는 蓮華座위에 合掌한 化佛一軀를 浮彫하였고 周緣에는 靑은 火焰과 雲文이 彫刻되었으며 左右便中間쯤에

는 飛天像이 各一座式 配置되었는데 구름위에서 供養하는 모습과 天衣가 힘있고 流麗한 법씨로 날리고 있는 樣式과 彫刻手法이 매우 注目되었다. 光背에 飛天을 配置한例는 全南海南郡大興寺北彌勒庵磨崖佛에서 도 볼 수 있는 바이다. 이런 圓刻佛의 光背에서는 稀貴한 一例라 할 것이다.

잘못 놓여있는 各部를 제자리에 配置하고 보면 佛像의 造成手法이나 光背및 臺座의 樣式으로 미루어 秀作이라 할 것이며 年代는 麗初로 推定된다.

- 實測値는 (cm) 像高 一二五, 肩幅 六〇, 頭高 四〇, 胸幅 三三, 膝幅 九〇, 臺座高 九五, 下臺上面一邊 三四, 膝高 三一(現高) 中臺高三八, 上臺徑 一一〇, 光背高 一五〇, 一邊幅 二七, 高三一(現高) 廣幅 一二六 下幅 八五이다.
- 二、石造菩薩像과 石物 一例

最近 이 곳 僧房新築工事時에 出土된바라 하는데 胴體뿐으로 頭部는 勿論 兩腕과 下脚部가 破損되어 相好나 各部樣式을 알지못함이 甚히 遺憾된 일이다. 沙岩類의 石材이며 缺損部는 많으나 出土物이어서 衣紋等의 彫飾은 宛然하다. 胸前에 瓔珞이 있으며 兩肩에서 내려진 瓔珞은 臍前에서 結束되어 몇개의 매듭을 지으면서 胸部로 내려졌고 그 兩側으로 流麗한 衣文이 날리고 있다. 側面腰帶에서 내려진 衣文에도 瓔珞이 裝飾되었으며 後面에는 太一條線의 띠와 衣文뿐이다. 全面에 瓔珞으로 彫飾한 手法이 羅代의 遺品으로 推定되는 貴重한 一例라 할 것이다. 實測値는 (cm) 現高 七五, 厚 二〇, 腰幅 一九이다. 前記菩薩像과 함께 出土된 石物一座는 上下面에 圓形突起(徑 一一〇cm 高 七cm)가 있어 臺座에 꼽고 위에 蓋石을 具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四面을 똑같이 長方形으로 陰刻하고 그 안에 坐佛一軀式을 浮刻했는데 共히 三瓣의 蓮華座위에 結跏趺座하였는바 手印은 各已 다르다. 이 形式은 마치 四面에 陰刻龕室을 만들고 奉安한 것이라 하겠다. 磨損이 甚하여 相好와 各部를 뚜렷이 把握하기는 困難하나 通肩法衣와 胸前의 瓔珞 彫飾等의 痕跡으로 보아 當初에는 高雅한 優作이었음을 짐작

케한다. 岩壁이나 獨尊으로서 佛龕에 奉安된例는 있으나 이렇듯 中石(或은 火舍石類) 四面에 彫刻된例는 稀貴한바라 하겠다. 年代는 前述한 菩薩像과 같이 羅代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 高 四〇 龕室高 三一幅 三〇 幅 二〇이다. 此外에 石造彫刻物로서는 高三〇cm 徑 一九cm의 寶珠一石이 있는데 蓮蕾의 手法이 溫柔하다.

三、其他遺物

- (1) 法堂前庭에는 二個의 八角石柱가(長 五〇cm 式)있는데 그中 一石에는 二面에 矩形의 陰刻(八cm × 一六cm, 深 七cm)이 各一孔씩 있다.
- (2) 石碑一座가 있는데 이것은 道光 一三年 四月에 重修한 黃山修船碑인 것이다(高 一三四cm 幅 五九cm 厚 一七cm) 原來 이 곳은 黃山이라 하여 江名도 黃山江이었으며 當時 江 건너 梅里와의 渡船場이었다는 바 이 碑石은 그 遺蹟으로 보인다.

「黃山」에 對하여는 東國輿地勝覽卷之二十二「梁山郡」編에 「黃山江」「黃山驛」等이 보인다.

(3) 龍雄殿內에는 「乾隆 二十四年 己卯 七月……」墨書銘의 佛幀이 一幅 있는 바 이것은 前任持 金日廣氏가 通度寺로부터 移安한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일은 現, 舊, 住持가 通度寺에 오랫동안 住錫했던緣由일 것이다(幀畫는 縱 七八cm 橫 七六cm 十一・九cm × 七cm 內에 墨書)

끝으로 結言하자면 이 곳에는 本來 寺刹이 經營되었던 것이나 오랫동안 廢寺되었다가 最近에 다시 重葺된바라 하겠다.

註

- ①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高サ凡四尺ノ石佛ノ外臺石二箇何レヨ耕地內ニ在リ」라 있다.
- ② 現地에 있는 「龍華寺法堂重創喜捨脚錄」參照
- ③ 拙稿・本誌第四卷第一號「金海郡甘露里의 寺址」